



우리나라 약학대학의 홈페이지를 통해 고찰한 교육이념

임유철 · 지은희*

가천대학교 약학대학
(2016년 10월 26일 접수 · 2016년 11월 28일 수정 · 2016년 11월 30일 승인)

Educational Goals Extracted from Homepages of Pharmacy Schools in Korea

Yu Cheol Lim and Eunhee Ji*

College of Pharmacy, Gachon University, Incheon 21936, Republic of Korea
(Received October 26, 2016 · Revised November 28, 2016 · Accepted November 30, 2016)

ABSTRACT

Background: The current educational goals and missions of pharmacy schools in Korea were analyzed to examine the current orientation and future direction of pharmaceutical education. **Methods:** Educational mission statements were obtained from the homepages of 35 pharmacy schools and subjected to convert into codes. Themes and categories were induced using qualitative content-analysis from the codes and compared according to location of school (capital area versus province), public versus private, and date of initial enrollment (before versus in 2011). The themes and categories were compared with "the eight-star pharmacist" suggested by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and International Pharmaceutical Federation (FIP). **Results:** Twelve themes, 44 categories, and 496 codes were identified. Themes included pharmaceutical expertise, professionalism, contribution to society, basic educational ideology, sphere of activity, leadership, research, dealing with future change, problem-solving ability, self-management and development, cooperation, and respect for life. Mission statements of schools that initially enrolled in 2011 cited humankind level contribution ($p=0.011$), patient-centered care ($p=0.026$), and globalization ($p=0.018$) more frequently than those enrolled before 2011. Most schools mentioned about care-giver, researcher, and decision-maker which were stated in "the eight-star pharmacist". **Conclusion:** To meet the growing social requirements of a pharmacist's roles, wide-ranging active discussion on establishing educational goals should be made.

KEY WORDS: Pharmacy school, mission statement, educational goals, content analysis, Korea

사회 전반적인 생활수준 향상과 수명연장 등으로 대중들에게 건강증진행태 및 건강한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¹⁾ 이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질병의 치료 또는 관리로부터 더 나아가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발전하고 있다.¹⁾ 건강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변화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인의 역할변화를 의미하며, 그에 대한 사회적 동의와 변화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의 개발이 수반되어야 한다.²⁾ 약사직능에 있어서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와 국제약학연맹(International Pharmaceutical Federation, FIP)에서 변화하는 사회에 부응하는 약사상으로 "The seven-star pharmacist"를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지

식, 자세, 태도, 기술 등이 교육과정에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³⁾

"The seven-star pharmacist"으로써 약사의 역할은 care-giver, decision-maker, communicator, leader, manager, life-long learner, teacher인데 이는 개별환자 및 공중보건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원을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비용경제적으로 배분하며; 환자 및 의사 등과 소통하고;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하며; 자원과 정보를 잘 관리하고; 약사면허 취득 이후에도 평생토록 전문적 능력을 수련하며, 차세대 약사들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이후 연구자로서의 역할이 추가되어 현재에는 "the eight-star pharmacist"가 되었다.⁴⁾ WHO에서는 전세계적으로 변화 또는 진화하고 있는 사

*Correspondence to: Eunhee Ji, College of Pharmacy, Gachon University, 191 Hambakmoero, Yeonsu-gu, Incheon 21936, Republic of Korea
Tel: +82-32-820-4939, Fax: +82-32-820-4829
E-mail: ehji@gachon.ac.kr

회적 수요에 부응하여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고 대중들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의 기술과 역량이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교육 및 훈련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개혁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⁵⁾ 미국약학대학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Colleges of Pharmacy, AACP)에서는 1989년에 약학교육 개혁위원회(AACP Commission to Implement Change in Pharmaceutical Education)를 발족하여 약사직능, 보건의료체계, 또는 사회의 변화하는 요구에 발맞추기 위한 약학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왔다.⁶⁾ 상기 위원회에서는 사회 내에서 약학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 정의하고, 약학직능, 약사실무 및 약학교육 각각에 대한 강령(mission statement, MS)을 발표하였는데 1) 약학직능은 약사실무, 약학교육, 신약개발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며 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중요사명으로 한다; 2) 약사실무란 의약품의 합리적 사용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약료를 제공하는 것을 중요임무로 한다; 3) 이러한 약학직능 및 약사실무의 중요임무로부터 약학교육의 중요임무를 유도할 수 있는데 약학직능의 중요임무 중 연구와 교육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 핵심 내용이다.

약사의 역할 및 약학교육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현하기 위하여 미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약학대학 학제를 4년제에서 6년제로 개편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많은 국가에서 6년제 약학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약학교육에 2+4년제를 도입, 임상약학과 실무실습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약사 직능범위를 확대하고 새로운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였다. 2011년부터 6년제 약학대학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2016년 현재 새로운 학제하의 졸업생을 2회 배출하였으며, 이들의 사회 진입으로 다양한 약사 직능 영역에서 약학 교육 및 약사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⁷⁻⁹⁾

MS란 어떤 조직의 핵심 목표에 대해 서술한 글로써, 조직 전체와 소통할 수 있는 도구이다.¹⁰⁾ 또한 MS는 조직의 비전과 전략적 계획을 표현하는 필수적인 문건이며,¹¹⁾ 조직의 정체성과 목적을 내·외부에 알리는 역할을 한다.¹²⁾ 이러한 MS를 갖춘 조직은 구성원의 동기유발 및 조직의 수행도가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더 향상된다고 한다.¹³⁾ 따라서 MS를 통해 어떤 기관이나 프로그램의 목표와 목적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다. 대학교육에서의 MS는 해당 대학의 교육목표를 담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교육영역에서 의사결정의 중요 판단기준이 된다. 해외에서는 특정 조직 및 대학의 MS를 분석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어 왔으며,¹³⁻¹⁵⁾ 국내에서도 의과대학에서 교육이념을 분석한 연구들이 발표되었으나,¹⁶⁻¹⁸⁾ 현재까지 우리나라 약학대학의 교육이념을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약학대학의 교육이념을 서술한 MS를 확보하기 위하여 각 대학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교육목표 등의 내용을 사용하였다.

이는 공개된 자료이며, 최근 들어 정보산업기술의 발달로 온라인 정보의 양과 질이 향상되어 홈페이지에 공지된 MS를 이용한 선행연구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14,18)} 본 연구의 목표는 전국 35개 약학대학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교육이념에 대해 분석하고, 이러한 교육이념을 통해 추구하는 약사상을 “the eight-star pharmacist”와 비교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약학대학의 설립시기, 설립주체, 지리적 위치 등에 따른 교육이념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약학대학의 교육을 통해 추구하는 미래약사의 모습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

연구대상 및 데이터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우리나라 35개 약학대학 전체이며, 데이터는 각 약학대학의 홈페이지에서 MS를 검색하여 수집하였다. MS는 교육이념, 교육목표, 교육목적, 비전 등 다양한 포맷으로 검색되었는데 제반 해당 내용을 모두 수집하였고, 이러한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학장인사말’ 등에서 관련 내용을 수집하였다. 약학대학의 공식 웹사이트 접속을 위하여 한국약학교육협회의 회원명단 및 링크를 일차적으로 활용하였고, 그 외에 Google이나 Naver 등의 검색엔진도 사용하였다. 자료의 최종 검색일은 2016년 5월 31일이며, 수집된 자료는 두 사람이 독립적으로 분석한 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였다.

질적내용분석

내용분석이란 데이터를 연역적 또는 귀납적 방법으로 분석하는 연구방법으로 어떤 현상을 개념화한 형태로 해석하기 위하여 수행된다.¹⁹⁾ 특히 질적내용분석은 텍스트에서 의미단위를 추출한 후 이들을 1) 코드, 2) 범주, 3) 테마 등으로 추상화하여 텍스트를 해석한다.²⁰⁾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문헌을 참고하여¹⁸⁾ 귀납적인 질적내용분석을 시행하였다. 먼저 수집된 텍스트 상의 접속사, 조사 등을 제거하여 핵심단어만 남긴 후 유의어, 동의어 등을 고려하여 코드로 치환하였다. 예를 들어 실무수행능력, 실무적응력, 실용능력, 실무, 실무능력 등의 핵심단어는 실무능력으로 코드화 되었다. 이러한 코드들 중 유사한 개념을 가진 것을 동일한 범주로 수집하였는데 가령 건강, 건강복지증진, 보건, 보건복지, 건강증진 등의 코드는 보건의료서비스로 범주화 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범주들을 테마 별로 정리하였다.

비교분석

“The eight-star pharmacist”의 8가지 역할에 대해 상기의 분석을 통해 도출된 범주들을 연역적 방법으로 비교하였다. 한편 약학대학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약학대학의 설립시

기(6년제 학제 이후에 신설된 약학대학 대 기존의 약학대학), 설립주체(국공립 대 사립), 지리적 위치(수도권 대 지방) 등으로 산정하였고 각각에 대해 MS 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통계분석

본 연구의 통계분석을 위하여 IBM SPSS version 20.0 프로그램(IBM Corp., Armonk, NY)을 사용하였다. 내용분석을 통해 도출한 코드, 범주, 테마 등의 빈도는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약학대학의 설립시기 등 특성에 따른 약학대학 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χ^2 -test를 시행하였다. 이때 통계적 유의성은 $p < 0.05$ 수준에서 측정하였다. 한편 하위집단 간의 차이를 시각화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분석 프로그램인 Organizational Risk Analyzer (ORA, version 2.3.6, Pittsburgh, Pennsylvania)를 사용하였다.²¹⁾

연구 결과

약학대학의 기본 특성

우리나라 35개 약학대학을 특성에 따라 분류하면 Table 1과 같다. 6년제 시행 이후 신설된 대학이 총 15개이며, 국공립 대학이 10개,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이 16개이다. 홈페이지 상에서 MS는 MS, 교육이념, 교육목적, 교육목표, 비전 등의 용어를 조합한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항목을 전혀 찾을 수 없는 대학도 네 군데 있었다.

MS의 코드, 범주, 테마

35개 약학대학의 MS로부터 추출된 코드는 총 496개였으며, 대학별 MS는 최소 4개, 최대 24개, 평균 14개의 코드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 코드들은 총 44개의 범주로 분류되었고, 최종적으로 12개의 테마로 추상화 되었다(Table 2). 약학대학의 MS가 표방하는 테마 및 그에 포함되는 범주, 그리고 그 각각을 포함하는 대학의 숫자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전체 약학대학에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는 테마는 ‘약학전문성’이었으며, ‘생명존중’은 가장 적은 5개 대학에서만 포함되었다. 12개의 테마를 빈도

Table 2. Codes, categories, and themes resulting from the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Codes	Categories	Themes
Total	496	44	12
Mean±SD	14±5.8	13±4.5	5±2.3
Minimum	4	4	1
Maximum	24	21	10

Values are shown as numbers. SD (Standard Deviation)

순으로 살펴보면 ‘약학전문성’, ‘전문직업성’, ‘사회기여’, ‘교육기본이념’, ‘활동영역’, ‘리더십’, ‘연구’, ‘미래 변화 대처’, ‘문제해결능력’, ‘자기관리 및 개발’, ‘협력’, ‘생명존중’ 순서로 나타났다.

각각의 테마는 최소 1개에서 최대 10개의 범주를 포함하였는데, 각 테마에 포함된 범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약학전문성’은 10개(약학지식, 실무능력, 기초약학, 사회약학, 약료서비스, 신약개발, 산업약학, 임상약학, 건강증진, 교육), ‘전문직업성’은 10개(윤리 및 도덕성, 창의성, 태도, 인격, 전문성, 책임감, 지성, 사회성, 전인적, 가치관), ‘사회기여’는 4개(봉사정신, 지역적 기여, 국가적 기여, 세계적 기여), ‘활동영역’은 3개(글로벌화, 지역화, 외국어 능력), ‘자기관리 및 개발’은 3개(자기개발, 평생학습, 자아실현), ‘협력’은 3개(환자중심약료, 의사소통, 보건의료인간 협력), ‘교육기본이념’은 2개(전학이념, 종교이념), ‘연구’는 2개(연구능력, 탐구정신), ‘미래 변화 대처’는 2개(미래지향, 변화대처), ‘문제해결능력’은 2개(사고능력, 문제해결능력), ‘생명존중’은 2개(생명존중, 인간존중), ‘리더십’은 1개(리더십)의 범주를 포함하였다. 각각의 범주는 최소 1개에서 최대 26개의 약학대학 MS에 포함되어 있었다. 20개 이상의 대학에서 포함된 범주는 다빈도 순으로 ‘약학지식’, ‘실무능력’, ‘기초약학’, ‘사회약학’, ‘약료서비스’, ‘윤리 및 도덕성’, ‘신약개발’로 나타났다. 오직 한 대학에서만 포함된 범주로는 ‘가치관’, ‘자아실현’, ‘보건의료전문인간 협력’으로 나타났다.

“The eight-star pharmacist”와의 비교

총 44개의 범주 중 21개 항목이 “the eight-star pharmacist”의 항목에 대응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Care-giver, researcher, decision-maker 등에 대응하는 범주를 포함하는 대학은 각각 34, 30, 28개로 분석되었다. 한편 leader, communicator, life-long learner, manager, teacher에 대응하는 범주를 포함하는 대학은 각각 16, 11, 6, 4, 2개로 나타났다.

대학의 특성에 따른 MS 비교

약학대학의 설립시기, 설립주체, 지리적 위치 등의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테마는 ‘협력’, ‘활동영

Table 1. Numbers of Korean pharmacy schools classified by the characteristics.

		Existing Schools		Newly-established Schools*		Total
		Public	Private	Public	Private	
Location	Capital region**	1	8	0	7	16
	Province	5	6	4	4	19
Total		6	14	4	11	35

* Established since 6 year-pharmacy education has been approved
 ** Region of Seoul, Incheon, and Gyeonggi-do

Table 3. Numbers of Korean pharmacy schools including each theme or category in their educational goals.

Themes	N	Categories	N
Pharmaceutical expertise	35	Pharmaceutical knowledge	26
		Pharmacy practice skills	26
		Basic pharmacy	25
		Social pharmacy	25
		Pharmaceutical service	24
		New drug development	20
		Industrial Pharmacy	17
		Clinical Pharmacy	16
		Health promotion	10
		Education	2
Professionalism	31	Ethics and morality	23
		Creativity	17
		Attitudes	14
		Personality	11
		Professionalism	11
		Sense of duty	9
		Wisdom	7
		Sociality	6
		Whole-person	4
		Values	1
Contribution to society	28	Service spirit	15
		Community-level contribution	15
		National-level contribution	11
		Humankind-level contribution	8
Basic educational ideology	19	Founding philosophy	19
		Religious spirit	2
Sphere of activity	17	Globalization	17
		Localization	4
		Foreign language skills	2
Leadership	13	Leadership	13
Research	8	Research ability	5
		Research spirit	3
Dealing with future change	7	Future-oriented	4
		Cope actively with changes	3
Problem-solving ability	7	Thinking ability	5
		Problem-solving ability	4
Self-management and development	7	Self-improvement	5
		Lifelong learning	2
		Self-realization	1
Cooperation	6	Patient-centered care	4
		Communication	2
		Teamwork among health professions	1
Respect for life	5	Respect for life	4
		Respect for human	2

Table 4. Virtues of 8 star pharmacist and corresponding categories with numbers of Korean pharmacy schools including them in their educational goals.

The eight-star pharmacist	N	Categories	N
Care-giver	34	Pharmacy practice skills	26
		Clinical Pharmacy	16
		Professionalism	11
		Health promotion	10
Decision-maker	30	Pharmaceutical knowledge	26
		Wisdom	7
		Thinking ability	5
Communicator	11	Sociality	6
		Patient-centered care	4
		Communication	2
Leader	16	Teamwork among health professions	1
		Leadership	13
		Future-oriented	4
Manager	4	Problem-solving ability	4
Life-long learner	6	Self-improvement	5
		Lifelong learning	2
Teacher	2	Education	2
Researcher	30	Basic pharmacy	25
		New drug development	20
		Research ability	5
		Research spirit	3

역’, ‘전문직업성’의 세 가지이고, 범주는 ‘세계적 기여’, ‘환자 중심약료’, ‘글로벌화’, ‘인격’의 네 가지로 나타났다. 신설대학은 기존대학에 비해 ‘협력’($p=0.04$)과 ‘활동영역’($p=0.013$)에 대한 테마를 더 많이 포함하였으며, ‘세계적 기여’($p=0.011$), ‘환자 중심약료’($p=0.026$), ‘글로벌화’($p=0.018$)의 범주를 더 많이 포함하였다. 사립대학은 국공립대학에 비하여 ‘전문직업성’의 테마를 더 많이 포함하였으며($p=0.044$), 지방대학은 수도권대학에 비하여 ‘인격’의 범주를 더 많이 포함하였다($p=0.004$). 그 외의 테마나 범주는 약학대학의 세가지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MS의 내용에 가장 큰 영향을 보이는 인지는 설립시기로 보이며 신설대학과 기존대학 간의 테마 및 범주의 관계를 시각화한 그림을 Fig. 1에 제시하였다.

고찰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35개 약학대학의 MS를 질적으로 내용분석함으로써 대학교육을 통해 추구하는 가치와 지향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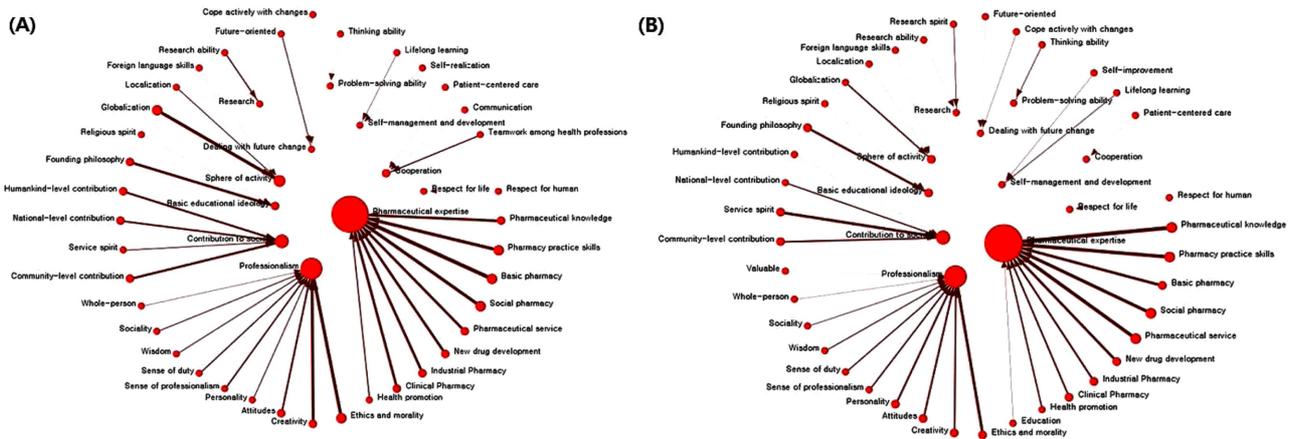


Fig. 1. Visualized themes and categories of newly-established (A) compared with existing pharmacy schools (B) in Korea. The size of the node and the thickness of the arrow were scaled from the frequency with which it appears in the text. The size of the node indicates the centrality of the concept whereas the thickness of the arrow indicates the density of the relationship.

에 대해 고찰하였다. MS는 교육이념에 대해 서술한 글로써 MS가 없다고 해서 교육이념이 없는 것이 아니고, MS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교육이념을 온전히 반영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러나 대학의 MS는 그 비전을 표현한 것이며, 소속되어 있는 사회적 환경을 반영한다. MS를 통해 어떤 이슈를 천명한다고 해서 반드시 유형의 결과를 산출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포함시키지도 않는다면 그 이슈는 고려조차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조직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MS에 잘 서술할 필요가 있다. MS를 웹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에 공지하면 대중에게 공개된다. 이렇게 공개된 자료는 약학교육 또는 약학계에서 중요한 자원이 되고, 약학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밑거름이 되며, 내·외부적인 소통의 도구가 될 수 있기에 중요하다. 그런데 11.4%의 대학에서는 홈페이지에서 교육이념, 교육목표 등 MS에 해당하는 항목을 찾아볼 수가 없어 아쉬움을 남겼다. 한편 본 연구를 통해 고찰한 바에 따르면 MS의 형식이 대학에 따라 다양하고, 용어의 정의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유사한 개념에 대해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어 해석에 혼란의 여지가 있으며, 대학에 따른 테마, 범주, 코드, 개수차이에서 알 수 있듯이 서술된 내용에 차이가 많았다. 약학대학 평가인증 편람에는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의 평가영역에서 교육목표를 명료하게 제시하고 그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한 교육과정과 평가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²²⁾ 한편 미국 약학교육평가원(Accreditation Council for Pharmacy Education, ACPE)에서 제시한 인증기준에는 대학의 비전, 중요임무, 목표를 공표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포함하는 전략적 계획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평가 및 개정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²³⁾ 약학교육의 목표수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논의의 활성화와 공감대의 형성이 필요하며, MS의 형식 및 내용에 대한 공식적인 지침이 필요하다. 또한 MS에 대한 사회적 소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AACP에서는 약학교육이 학생들이 변화하는 보건의료시스템에서 전문직능인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그에 필요한 지식으로 약물과 약료시스템에 관련된 지식을 가르칠 책임이 있다고 한다.⁶⁾ 우리나라 약학교육에서도 약물 및 약료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아직 약료서비스를 전체 보건의료시스템과 연계하여 고려하는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6년제 약학교육이 시행되면서 약사가 비로소 보건의료인으로 규정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약사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약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환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약료서비스를 포함하는 대학이 24개로 전체의 69%에 불과해 이에 대한 약학계의 공감대 형성이 요구된다. 한편 AACPE에서는 약학대학에서 임상약학이나 그 외의 약사직능에서 졸업 후 레지던트라던가 펠로우십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약료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졸업을 한 약사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이나 훈련을 제공하여 약사로서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새로이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⁶⁾ 그런데 우리나라 약학대학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언급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약사직능단체와 약학대학이 연계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약사보수교육을 개발한다면 약사의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 외에 윤리성 등과 같이 약사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에 대한 언급은 유사하였으며, 우리나라 약학대학에서 신약개발이나 제약산업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WHO-FIP의 “the eight-star pharmacist”에서 제안한 약사의

care-giver, decision-maker, researcher로서의 역할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약학대학의 MS에 서술되어 있었다(각각 97%, 86%, 86%). 그 외의 약사의 역할을 MS에 서술한 대학의 비율은 leader 46%, communicator 31%, life-long learner 17%, manager 11%, teacher 6%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8월부터 다학제 통합진료의 수가 신설되는 등 보건의료서비스에서 팀진료가 최근의 경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다학제팀에서 약사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시의적으로도 중요하다. 약사는 환자와 의사의 사이에서 연결고리를 제공하고, 대중에게 건강이나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상적인 위치에 있으므로 communicator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지역약국이 공중보건 향상의 허브로써 기능할 수 있게 한다. 약사는 미래 세대 약사들과 대중에 대한 교육과 육성을 지원할 책임이 있다. 교육을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지식을 전달하기도 하지만 스스로도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기술도 새로 가다듬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⁴⁾ 현재 약학대학생의 실무실습교육에 프리셉터로 참여하는 것에 대한 기성약사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들이 모두 약학교육에 반영되어 차세대약사들에게 교육되어야 할 것이다.

약학대학의 특성에 따라 MS 간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신설대학이 기존대학에 비해 ‘세계적 기여’, ‘글로벌 변화’ 등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아 약사의 국제적 역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환자중심약료’ 또한 신설대학에서 더 많이 나타났는데 기존대학의 MS에 6년제 약학교육의 취지가 아직 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학교육평가인증기준에는 의과대학 내에 의학교육학교실의 개설 및 의학교육전임교수의 채용여부에 대한 평가항목이 있으며, 졸업성공에 대한 평가기준을 대한의사협회에서 발표한 “한국의 의사상”으로 삼고 있는 것을 찾아 볼 수 있다.²⁴⁾ 또한 한국의학교육학회가 존재하며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이라는 학회지도 발간하고 있다. 이로부터 의학교육 또는 의사직능의 사회적 역할에 대하여 대학과 직능 및 연구집단에서 유기적으로 연구되고 논의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약학교육 및 약사직능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논의는 약학대학의 6년제 학제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접목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10년 7월에 한국약학교육협회가 설립되고 이어서 2011년에 한국약학교육평가원이 설립되어 약학교육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제개편 이후 아직 10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약학교육의 허실을 논할 수는 없지만 약학교육과 약사의 역할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함에 대한 사회적 동의와 그를 위한 조직적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약학대학의 교육이념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로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실제 각 대학의 교육이념이 홈페이지 상에 온전히 표현되어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학의 홈페이지는 내·외부적인 소통의 장이며 이 곳에 공지된 내용은 사회적으로 공개된다. 특히 한국약학교육평가원에서는 대학의 목표를 사회에 공표할 것을 권장하는바,²²⁾ 대학에서는 표방하는 교육이념을 홈페이지에 온전히 게시하고 적절히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홈페이지 상에 표현된 약학대학의 교육이념에 대해 분석한 것으로 실제 각 대학의 교육이념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였을 수는 있으나, 그 중요성에 대해 환기를 시킨 것에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동일한 단어가 서로 다른 의미로 기술되기도 하고 동일한 의미를 서로 다른 단어로 표현하기도 하므로 내용분석을 함에 있어 이에 따른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연구진 내에서 반복된 논의와 합의과정을 거치긴 하였으나 표현된 단어의 의미를 해석하고 연역적, 귀납적으로 분류한 것에 상이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약학교육을 통해 추구하는 약사상을 “the eight-star pharmacist”와 비교하였는데 이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합의된 한국의 약사상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한국적 약사상의 수립에 각계의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이념은 실제 교육현장에서 그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이 시행되었을 때 의미가 있으며 이러한 교육을 통해 양성된 약사가 궁극적으로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한편으로 미래 약사의 직능 확대 및 사회적 요구 충족을 위해서는 이를 위한 교육이념과 구체적인 교육과정의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약학대학 6년제 학제 개편을 계기로 약학교육목표, 교육과정, 약사의 역할 등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World Health Organization. Ninth general programme of work - Covering the period 1996-2001. Geneva, Switzerland, 1994.
2. FIP Statement of policy on good education practice. In: International Pharmaceutical Federation (FIP) Council, Vienna, 2000.
3. World Health Organization. The role of the pharmacist in the health care system. Vancouver, Canada, 1997.
4. Wiedenmayer K, Summers RS, Mackie CA, *et al.* Developing pharmacy practice: a focus on patient care. WHO-FIP, Hague, Netherlands, 2006.
5. World Health Organization. Transforming and scaling up health professionals' education and training; WHO Guidelines 2013. Geneva, Switzerland, 2013.
6. American Association of Colleges of Pharmacy. Commission to implement change in pharmaceutical education: What is the mission of pharmaceutical education? Available from <http://www.aacp.org/>. Accessed June 30, 2016.
7. Yoon JH. The challenge as an advanced pharmacist of health system. J Kor Soc Health-Syst Pharm 2012;29:235-247.
8. Chang MJ, Noh H, Lee JI. Construction and evaluation of the student practice program in the hospital under the 6-year college of pharmacy curriculum. Kor J Clin Pharm 2013;23:300-5.

9. Jung GY, Lee YJ. Examination of clinical pharmacy curriculum in Korea and its comparison to the U.S curriculum. *Kor J Clin Pharm* 2014;24(4):304-10.
10. BusinessDictionary.com. Definition of mission statement. Available from <http://www.businessdictionary.com/definition/mission-statement.html>. Accessed June 28, 2016.
11. Morphew CC, Hartley M. Mission statements: A thematic analysis of rhetoric across institutional type. *J High Educ* 2006;77:456-71.
12. Lewis ET, Carley KM, Diesner J. Displaying responsiveness or asserting identity in organizational language: How concept networks capture rhetorical strategies. Available from <http://www.casos.cs.cmu.edu/publications/papers/sunbelt.pdf>. Accessed June 28, 2016.
13. Bart CK and Baetz MC. The relationship between mission statements and firm performance: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1998;35:823-853.
14. Grbic D, Hafferty FW, Hafferty PK. Medical school mission statements as reflections of institutional identity and educational purpose: A network text analysis. *Acad Med* 2013;88(6):852-860.
15. Valsangkar B, Chen C, Wohltjen H, *et al.* Do medical school mission statements align with the nation's health care needs? *Acad Med* 2014;89(6):892-5.
16. Park JB and Park JH. Analysis of educational goals and objectives of Korean medical schools. *Korean J Med Educ* 1996;8(2):145-51.
17. Jang SH, Lee KS, Lee WJ, *et al.* The changes in the educational goals and objectives of medical schools in Korea. *Korean J Med Educ* 1998;10:11-20.
18. Kim DH, Kim EJ, Hwang J, *et al.* What is the current orientation of undergraduate medical education in Korea? *Korean J Med Educ* 2015;27(2):87-98.
19. Elo S and Kyngs H. The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process. *J Adv Nurs* 2008;62(1):107-15.
20. Graneheim UH and Lundman B.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in nursing research: concepts, procedures and measures to achieve trustworthiness. *Nurse Educ Today Jnl* 2004;24(2):105-12.
21. Carley KM and Reminga J. Ora: Organization risk analyzer, Center for Computational Analysis of Social and Organizational Systems. Available from http://www.casos.cs.cmu.edu/publications/papers/carley_2004_oraorganizationrisk.pdf. Accessed May 15, 2016.
22. Korean Accreditation Council for Pharmacy Education. Accreditation manual for pharmacy schools. Available from http://kacpe.or.kr/board/index.php?boardid=hz_board_data&mode=view&no=1&vn=3&start=0&search_str=&val=&cat_no=&PHPSESSID=860d9b2817b88c34c3d913c29c35a38b. Accessed June 15, 2016.
23. Accreditation Council for Pharmacy Education. Accreditation standards and key elements for the professional program in pharmacy leading to the Doctor of Pharmacy degree. Chicago, Illinois, 2015.
24. Korean Institute of Medical Education and Evaluation. Medical college accreditation standards. Available from <http://www.kimee.or.kr>. Accessed June 15, 2016.